

# 조기 대선 노리는 단타족... 정치·정책 테마株 ‘주의보’

상지건설·경남스틸 등 상한가 소문으로 주가 상승... 버팀목 없어 “자칫 올라타다가는 돈 잃기 쉬워”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정책 테마주들이 때마침 기세를 부리고 있다. 시국이 어수선한 걸 틈타 한몫 챙기려는 단타족들의 등장이다. 이런 종목들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이른바 ‘꾼(투기세력)들의 영역’이다. 전문가들은 “일반 개인(개인 투자자)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거나, 흐름에 올라타다가는 돈을 잃기 쉽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은 이날 상한가(+29.97%)를 기록했다. 기본소득 공약과 맞물려 정책 수혜주로 주목받는 코나아이가 27.78% 상승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를 위해 오는 11일 퇴임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흥준표 대



Chat GPT로 생성한 ‘조기대선 관련 정책주, 정치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구시장 관련주도 빠르게 반등했다. 흥시장의 고향 창원엔 위치한 경남스틸은 상한가로 직행하며 전일 대비 29.97% 상승했다. 같은 테마주인 한국선재, 삼일, 태양금속 등은 20%대 급등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관련주인 안랩(+19.28%), 씨니전자(+13.5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인 대상홀딩

스(+18.84%), 태양금속(+29.88%) 등도 상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기록하며 대선 테마주에 편승했다.

정책 테마주들도 꿈틀하고 있다. ‘일자리 관련주’로 분류되는 원티드랩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29.98% 상승했다. AI 기반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윈티드랩은 대선 국면에서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며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직무 기반 역량 평가와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오픈놀은 23.60% 급등했다. 전문직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메가엠디도 11.29% 상승하며 대선 정책 테마주의 흐름을 탔다.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대선 공약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대책도 관련주를 끌어올렸다. 저출산 정책주로 묶이는 에르코스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29.99% 올랐다. 에르코스는 영유아 식품과 대체식품을 제조하며, 출산율 저하 문제와 맞물려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저출산 정책 관련주인 꿈비(유아용품 제조)는 29.96%, 아가방컴퍼니(유아의류·용품 제조)는 17.95%, 제로투세븐(유아의류·용품 제조)은 13.48%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정치 테마주란, 기업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유력 대통령 후보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면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종목이다. 기업 가치와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다. 미국에도 정치 테마주와 유사한 ‘정책 주도주’가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유력 정치인의 정책 이슈로 움직인다. 반면, 한국 정치 테마주는 정책보다는 사사로운 인연으로 오르내린다.

자본시장연구원원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 테마주 83개를 분석한 결과, 후보와 경영진 사이 공통 지인이 44%, 경영진과의 사적 인연이 18%, 학연이 16%였다. 이렇게 실체가 없고 뉴스와 소문만으로 오르내리다보니 변동성이 심하다.

정치 테마주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 가치 없이 소문에 오른 주가는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진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며 묻지마 투자에 주의를 당부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주식시장 관세 쇼크

### “소비재·유통 등 내수업종 중심 투자전략 세워야”

전문가들 보수적 투자전략 조언 “방어적 성격이 강한 통신주 매력적”

내수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2기 행정부발 ‘관세 전쟁’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다.

7일 증권가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을 비롯한 대형 증권사들은 글로벌 증시 급락과 관세 리스크 등에 대응할 투자처로 내수업종을 꼽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관세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기 이전까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이런 환경에서 주식시장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쉽

지 않다”며 “방어력이 높은 엔터, 금융주, 게임주 등 내수주를 중심으로 수익률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수주 중에서도 통신주는 방어력이 중요해진 현재 시장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특성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신업종을 대표하는 ‘KRX 방송통신’ 지수는 최근 일주일 동안 0.30% 하락에 그치며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

후 3~4년간 큰 기술 변화가 없는 통신 산업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비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구조로, 영업이익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방어적 성격이 강한 통신주가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치적 상황 변화 이후 재정 확대 가능성도 내수주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야당에서는 35조원까지도 거론하는 상황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I 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

비 재정적자는 0.5%에 불과했으며, 이는 미국(7.6%), 일본(6.1%), EU(3.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비재, 유통, 건설 등 내수 중심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도 제시된다. 김대준 연구원은 “미국이 단기간에 과도한 조치를 취한 만큼, 이를 완화하려는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다”며 “실적이 견조한 반도체, 방산, 기계, 조선 업종은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왼쪽부터)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위촉식에 참석한 윤태화 가천대 교수, 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 최아름 성균관대 교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일PwC

### 삼일PwC-한국회계학회 윤태화·최아름 교수 ‘삼일저명교수’ 위촉

삼일PwC가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가 선정하는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에 윤태화 가천대 교수(봉사 부문)와 최아름 성균관대 교수(연구 부문)가 선정됐다고 삼일PwC가 7일 밝혔다.

‘삼일저명교수’ 제도는 삼일PwC가 2003년부터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국 회계학회의 발전을 위해 연구, 저술, 봉사 3개 부문에서 업적 및 활동이 뛰어난 현직 교수를 선정해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봉사 부문에 선정된 윤태화 교수는 오랫동안 회계 분야에서 봉사하며 회계 산업 및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연구 부문에 선정된 최아름 교수는 회계학 분야에서 국제 우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며 연구 실적을 쌓아왔고,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학문적 영향력을 넓혀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윤훈수 삼일PwC 대표는 “두 분의 뛰어난 전문성과 열정이 한국 회계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삼일PwC도 회계학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 반도체株 급락... 증권가 “업황 회복 기대감은 유효”

美 증시 폭락, 개별관세 도입 등 영향

삼성전자가 ‘4만전자’(주가 4만원대)로 추락할 위기다. SK하이닉스는 ‘16만닉스’(주가 16만원)로 주저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련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영향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17% 하락한 5만 32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9.55% 내린 16만 4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같은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개별 관세 도입을 예고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

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일 시행 예정인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연기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지만, 하워드 러트니 미국 상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는 계획대로 부과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동차 시동 버튼과 전자레인지 작동 버튼에 들어가는 반도체 역시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관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3일(현지시간)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추가 압박 가능성을 내비쳤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대미 수출 상위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업종 등이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한국 업체들의 반도체에 향후 25%의 개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약 8.3%의 가격 하락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미들의 고민도 커졌다.

증권가는 사라고 외친다.

최근 한달간 삼성전자 보고서를 낸 증권사 15곳 중 6곳이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메모리 시장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KB

/원관희 기자